

새천년의 고대 건축물, 석조전의 변용과 첨단 이미지의 구현



개교 100주년을 맞아 2005년 완공한 백주년기념삼성관의 외관(왼쪽)과 실내 아트리움(오른쪽). 2000년대 고대 건축물은 백주년기념관처럼 외관은 고딕 석조전 양식과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실내 공간에서는 시대에 발맞춘 현대적 세련미를 추구했다.

고려대학교의 건축물과 역사 16

100주년 기념사업과 2000년대 건축풍경

인촌기념관(1989~91)과 한국학관(1997~99) 등이 1990년대 고려대학교 건축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계속된 화두는 역시 캠퍼스의 현대화였다. 이 같은 현대화 작업은 2000년대 들어서며 더욱 큰 탄력을 받는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2005년 5월의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야 했기 때문이다.

모교는 이러한 상징적 시점을 기해 '민족고대 100년'을 넘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세계고대 1000년'을 향해 도약할 것을 선포했는데, 첨단의 교육연구 시설과 공간의 확보는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사안이였다. 그 같은 비전을 따라 새로운 건물이 대거 건축됐고, 일부 오래된 건물들은 철거되거나 리모델링됐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안암캠퍼스에 신축된 건물만도 30동이 넘으며, 지하광장 개발 및 재단소유 건물을 합하면 그 시설물 수는 증가한다. 현대자동차경영관(2011~2013), 문숙의학관(2013~14), 하나과학관(2013~14) 등은 최근 준공된 건물의 예이며, 미래공학관(2013~)처럼 현재 진행 중인 건물도 있다. 이러한 시설 확충은 2000년 12월 개통된 지하철 6호선의 고려대역 및 안암역과 함께 상승효과를 발휘했고, 캠퍼스는 더 개방되고 현대화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고딕 석조전의 현대적 확장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건물들 중

에는 중앙광장(1999~2002), 백주년기념삼성관(2002~05), 녹지캠퍼스의 화정체육관(2004~06)과 같이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건축된 시설이 있고, 중앙광장의 지하개발 성공을 자연계캠퍼스에 접목한 하나스퀘어(2005~06)도 두드러진다.

그리고 화강암 흑두기로 거칠게 마감한 백주년기념관처럼 안암캠퍼스 초기의 고딕 석조전들을 양식적 모델로 삼은 건물들이 여럿 건축된 것도 쉬이 눈에 들어온다. 이전의 교양관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 지은 우당교양관(2001~03), 백주년기념관 뒤편의 LG-POSCO 경영관(2001~03), 중앙도서관(대학원) 뒤편의 동원글로벌리더십홀(2006~07), 캠퍼스와 가로의 경계에 세워진 재단소유의 인촌로빌딩(2003) 등이 그 예다.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며 1970년대의 원칙(본보 2015년 3월호, 연재물 10회분 참조)에서 벗어나 석조건축의 상징성을 대폭 활용했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거칠게 다듬은 화강석이 아니더라도 잔다듬된 화강석이나 유리처럼 매끈하게 물갈기한 판석을 외벽에 사용하는 것은 이제 고려대학교 건축의 보편적 방법이 됐다. 법학관 신관(1999~2001), 평생교육원인 라이시움(1999~2001), 생명과학대학(동관)(2002~03), 인촌로 제2빌딩(2004), 식품안전관(2006~08) 등 신축되는 다수의 건물들이 그 같은 외피를 택한다.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우회적으로나마 초기 석조건축물에 대한 동질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노선은 리모델링되는 건물에도 적용됐다. 2003년과 2004년 리모델링된 정경관과 생명과학대학(서관)이 그렇다. 고려대학교 건물로서는 독특하게도 변색 붉은벽돌로 마감됐던 정경관, 그리고 모더니즘 양식을 차용했던 생명과학대학의 전신 농과대학 건물이 모두 현대식의 화강암 판석으로 새단장된 것이다.

첨단 과학의 이미지

그러나 초기의 석조고딕 건축물로부터 거리가 있는 자연계와 녹지캠퍼스는 그 같은 석풍(石風)의 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영향



미국 바텔연구소가 입주한 미래융합기술관(2008). 전면의 매스와 그 위 유리 원통 및 옥상구조물이 참신한 이미지를 선사하는 이 건물처럼, 자연계 캠퍼스엔 현대적 감각의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다.

이 덜하다. 자연계 지역의 경우 고풍스런 석탑이 아닌 첨단 과학의 이미지가 더 중요한 관건이라 하겠다.

물론 인문사회계의 건물이 대체로 고딕석탑의 외관을 반영했다고 할지라도 실내 공간만큼은 시대에 발맞춘 현대적 세련미를 추구했다. 예컨대 백주년기념관

의 아트리움은 1층부터 5층의 천창까지 직경 21m의 원형기둥 형태의 볼룸을 가짐으로써, 외관과 상반되는 공간의 수평적, 수직적 확장성을 내포한다. 그리고 대리석 바닥뿐만 아니라 곡면의 유리와 스테인리스스틸로 마감된 각층의 파라펫 및 천창은 최신의 미감을 보여주는 인자다. 더불어 전체가 유리로 제작된 엘리베이터 홀과 엘리베이터는 재료가 갖는 투명성과 개방성을 극대화한 예라 할 수 있다.

자연계 지역 건축물을 살펴보면, 공학관 아래에 세워진 창의관(2001~03)은 큰 지분을 갖는 기계공학부를 상징하듯 벽면에 금속제 루버와 격자프레임이 부착됐고, 미국 바텔연구소가 입주한 미래융합기술관(2006~08)

은 살짝 튼 전면의 매스와 그 위 유리 원통 및 옥상구조물이 참신한 이미지를 선사한다. 특히 근래 완공된 자연계 남단의 로봇융합관(2009~11)은 고층건물시공 자동화사업단의 연구용 건물로서, 무인시공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첨단 과학기술을 내포하고 있다.

녹지캠퍼스의 기숙사 지역은 이정덕 교수가 최초 계획할 당시부터 석탑과 무관하게 집같이 편안한 'homey' 스타일을 강조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중 하나로서 기숙사 여러동이 전래의 주거를 상징하듯 박공(경사)지붕으로 덮였다. 이처럼 이완된 분위기는 2005년 완공된 외국인 기숙사 CJ International House(2004~05)에 와서는 밝은(시스템)적벽돌 외장으로 이어진다. 기숙사 콤플렉스에는 민자기숙사인 프런티어관(2008~11)이 세워져 부족한 학생 주거시설을 확충했고, 안암글로벌하우스(2012~13)도 여기에 힘을 보탰다.

돌이켜 보건대, 2000년대의 고려대학교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는 중앙광장을 꼽을 수 있겠다. 우리나라 대학 캠퍼스의 지하개발을 선도했다는 까닭에서다. 안암캠퍼스 자체에서의 의미를 찾는다면 타이거플라자(2004)나 해송법학도서관(2006~07)을 비롯한 몇몇 건물들을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고풍스러웠던 캠퍼스를 현대적 감각으로 일신한 대표적 사례다. 이 같은 지하광장 개발 및 최신의 건축 유형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두 회분의 글을 통해 각각 살펴볼 것이며, 이로써 이 연재물을 마감하고자 한다.



김현섭(건축공92) 모교 건축학과 교수